

시로 만드는 나만의 노래

글. 강현규 SBS A&T 방송기술팀 사원

"이거 무슨 노래야? 노래 좋다."

어느 날 문득 친구에게 새로 나온 곡이라며 노래를 들려주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노래가 끝날 때쯤 시로 만든 노래라고 말했을 때 놀라던 친구의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AI 음악 생성 툴을 처음 접했을 때, 몇 줄의 문장을 입력하자 멜로디가 만들어지고 AI 보컬이 가사를 마치 사람처럼 불러주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직접 작곡하거나 노래를 부른 건 아니지만, 내가 쓴 한 줄의 문장과 감정이 하나의 노래로 완성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 요즘 나는 이 AI 기술을 활용해 나만의 노래를 만드는 일을 즐기고 있다. 예전처럼 장비를 세팅하거나 복잡한 녹음을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문장 몇 줄이면, 내 머릿속의 감정이 노래로 만들어진다.

♪ 누구나 노래를 만드는 시대

예전에는 노래를 만든다고 하면 작곡가나 프로듀서처럼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영역이었다. 미디 컨트롤러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같은 장비는 기본이었고, 하나의 곡을 완성하기까지는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다. 이제는 AI만 다룰 줄 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최근에는 텍스트 몇 줄만으로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주는 음악 생성형 AI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uno, Udio, Mubert, Soundful' 등이 있다. 이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프롬프트)을 바탕으로 멜로디를 구성하고, 보컬을 합성하며, 편곡과 믹싱까지 거쳐 하나의 완성된 곡을 만들어낸다. 그동안 전문가만이 가능했던 음악 제작 과정을, 이제는 AI가 손쉽게 해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내가 주로 사용하는 툴은 Suno다. Suno는 프롬프트만으로 멜로디와 보컬이 동시에 생성되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는 순간, 몇 초 뒤에는 진짜 노래가 완성되어 있다. 또한 ChatGPT를 함께 활용해 가사의 콘셉트나 감정선을 구체화하면, 더 완성도 높은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ChatGPT는 내가 떠올린 주제나 감정을 언어로 정리해 주는 작사가 같고, Suno는 그 이야기에 멜로디를 입혀주는 작곡가이자 보컬리스트 같다. 예전엔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면, 지금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나만의 노래가 완성된다. AI로 노래를 만드는 일은 이제 내 일상 속 취미가 되었다. 최근에는 AI 음악 제작 공모전에 참여하며, ChatGPT와 Suno를 활용한 작업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ChatGPT와 Suno로 완성한 AI 음악 작업기

AI 음악 생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 우연히 전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공지를 보게 되었다. 서로 다른 음악 장르를 결합하는 ‘크로스오버’라는 특성상, AI 기술을 접목하면 전에 없던 음악적 조합이 탄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AI로 국악의 감성을 표현하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작업은 단순히 AI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구상한 콘셉트를 AI와 함께 구현해가는 창작 실험이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작업을 진행했다.



ChatGPT를 활용해 곡 콘셉트 및 아이디어 구상

먼저 ChatGPT를 활용해 곡의 방향을 구상했다. 공모전의 키워드가 ‘미래문화, 국악, 크로스오버, 전주’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핵심이었다. ‘전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물음으로 ChatGPT와 대화를 시작했다.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국악 크로스오버 곡을 만들고 싶어.
전통적인 정서를 살리면서도 대중적인 음악 콘셉트를 제안해줘.”

ChatGPT는 전통 악기와 전자음악의 결합, 국악 장단을 활용한 리듬 구조, 그리고 민요나 토속 소리를 테마로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전주를 상징할 만한 전통 민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ChatGPT는 전북 지역의 다양한 민요를 소개해 주었고, 그중 ‘전주 아리랑’이 가장 눈에 띄었다.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 전주의 지역성과 보편적인 감성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 곡의 메인 테마를 ‘전주 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정했다. 장르는 ‘힙합·R&B+국악’의 조합을 택했다. 감성적인 멜로디 라인에 전통 악기의 울림을 얹으면, ‘전주 아리랑’이 가진 여운과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1단계: 방향 정하기

곡 목적

-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세련된 현대음악
- 전통 국악 요소와 현대 장르의 조화
- 친숙하지 않고 대중적인 완성도
- 공모전 키워드(미래문화, 국악, 크로스오버, 전주) 반영

장르 후보

1. K-Hip Hop x 국악
 - 비트 중심, 랩과 멜로디 병행
 - 예: Dynamic Duo + 국악 밴드 느낌
2. R&B x 국악
 - 부드러운 그루브, 감성 강조
 - 예: DEAN, GRAY, 이하이 국악 크로스오버
3. Lo-fi Hip Hop x 국악
 - 차분하고 도시적인 무드, 영상 BGM에도 어울림
 - 예: 해외 Lo-fi + 전통 악기 샘플
4. EDM Future Bass x 국악
 - 에너지 있는 사운드, 젊은 층 타겟
 - 예: DJ KSHMR 스타일에 국악 샘플링

전주를 나타내는 민요가 있을까?

전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전통 민요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건 많지 않지만, 전라북도(특히 전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토속 민요와 판소리·농악 계열 소리가 있습니다.

전주·전북 지역 민요/소리 예시

1. 전주 아리랑
 -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 아리랑이 있는데, 전주/전북 지방에도 가사와 장단이 조금 다른 아리랑 변형이 존재
 - 후렴: “아리 아리랑 소리소리랑 아리랑이 났네” 형태
 - 지역 사투리나 풍물 장단이 반영될
2. 모악산 타령
 - 전주 인근 모악산을 배경으로 한 타령
 - 산과 자연, 농사, 사람들의 생활상을 노래
 - 밝고 경쾌한 장단
3. 전라도 농악(사물놀이) 구호
 - 행과리·장·창구·북 장단에 “열씨구, 열씨구” “열수 좋다” 같은 추임새
 - 전주 풍물굿·농악에서 흔히 들을 수 있음
4.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죽대머리
 - 전주가 춘향가의 배경이 되는 남원과 가까운 판소리 문화권
 - 판소리 한 대목을 현대적으로 변형해 사용 가능
5. 전주농사소리
 - 모내기나 추수 때 부르던 노동요
 - 느린 굿거리장단부터 빠른 자진모리로 변화

가사 작성

곡의 콘셉트를 '전주 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정한 뒤, 그 감정을 가사로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했다. '아리랑'이 가진 정서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이별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다시 나아가는 힘과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있다. 나는 이 감정을 전주의 현대적인 풍경 속에 녹여내고 싶었다. 그래서 ChatGPT에게 곡의 분위기와 주제를 설명하며 랩과 멜로디가 공존하는 R&B·힙합 형식의 가사 구조를 제안받았다.

“전통적인 ‘아리랑’의 정서를 유지하되, 도시적인 감성과 리듬감을 살린 가사를 써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고, 몇 차례 수정하며 가사를 완성해 갔다.

1차 가사 시안 – K-Hip Hop + R&B x 국악

[Intro – Melody / 4마디]
(soft and clear tone of a Korean traditional zither, plucked with fingers)
빛과 그림자가 춤추는 골목
(deep and heavy tone of a Korean bass zither, strings plucked or strummed)
시간이 흐르고, 노래는 남아
이 길 위에 발걸음이 스민다

[Hook – 민요 재해석 / 4마디]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resonant and deep metallic sound of a large Korean gong, slow and heavy)
아라리요, 전주를 담아
이 길 위에, 우리의 노래

[Verse 1 – Rap / 8마디]
(soft and clear tone of a Korean traditional zither, plucked with fingers) whisper in the night
한옥과 네온이 나란히 빛나
(bright and metallic sound of a small handheld Korean gong) cut through the beat
전주의 pulse, ride it all night
과거와 미래가 손을 잡고
모래시계 형태의 양면 북, heartbeat flow
거리에 번지는 웃음과 sound
여기서 시작돼, 문화의 town

최종 가사 – K-Hip Hop + R&B x 국악 (인트로 연주만)

[Intro – Instrumental / 4마디]
(soft and clear tone of a Korean traditional zither, plucked with fingers)
(deep and heavy tone of a Korean bass zither, strings plucked or strummed)
(clear and emotional tone of a two-stringed Korean fiddle played with a bow)
(resonant and deep metallic sound of a large Korean gong, slow and heavy)

[Verse 1 – Rap / 8마디]
(soft and clear tone of a Korean traditional zither, plucked with fingers) 골목을 스치고
한옥과 네온이 나란히 빛나
(bright and metallic sound of a small handheld Korean gong) 비트를 가른다
전주의 pulse, ride it all night
밤공기 속에 번지는 향기
(Korean hourglass drum, dynamic rhythms) 리듬을 두드려
기억과 꿈이 한 자리에
이 도시 위에 나를 새겨

[Pre-Chorus – R&B Melody / 4마디]
손끝에 닿은 시간, it's alive
비트 위에 번져, come and vibe
어제와 오늘이 한 줄로
Tomorrow's story, let it grow

AI 노래 생성을 위한 스타일 프롬프트(Style Prompt) 작성

Suno에서는 음악을 생성할 때, 3가지 주요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Lyrics (가사 입력)

- 곡의 가사를 입력하는 공간이다. 직접 쓴 가사를 넣거나, ChatGPT로 생성한 가사를 붙여넣으면 된다.
- 가사 구조 (예: [Verse 1], [Hook], [Bridge])를 구분해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구조를 인식한다.
- 보컬 없이 반주만 생성하고 싶을 경우, 이 칸을 비워 두면 Instrumental 모드로 자동 인식된다.

Styles (스타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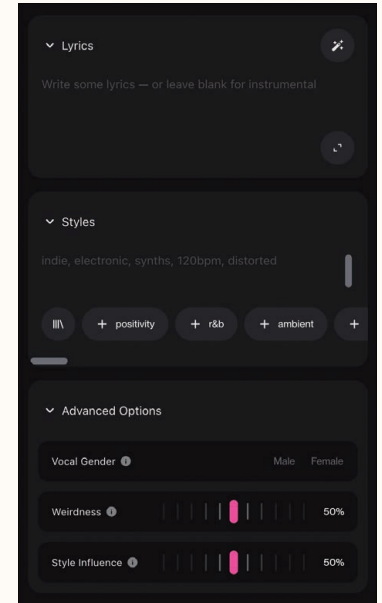
- 곡의 장르, 분위기, 악기구성, 보컬 톤, 사운드 질감 등을 지정하는 항목이다.
- 키워드 형식으로 입력하며, 여러 개의 스타일을 조합할 수 있다. (예: R&B, hip-hop, ambient, traditional, fusion 등)

Advanced Options (세부 설정)

AI가 음악을 해석하고 생성하는 방식의 '세부 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 Vocal Gender → 보컬의 성별을 선택한다. (Male / Female / Auto)
- Weirdness → 창의적인 해석의 강도를 조절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독특한 리듬, 예상치 못한 사운드가 나타난다.
- Style Influence → 입력한 스타일 태그의 반영 강도를 조절한다. 높을수록 지정한 장르나 분위기가 더 명확히 반영된다.

스타일 프롬프트 작성을 위해 Chat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프롬프트를 수정했다. 국악기의 질감을 살리되, 전체적인 사운드는 세련된 K-R&B와 힙합의 결합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Suno는 국악기를 직접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악기의 특징을 사운드 질감 중심의 묘사로 우회해 표현했다. 최종적으로 작성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다.



“Korean R&B hip hop at 94 BPM, smooth groove with Korean traditional zither (plucked, bright and clear), Korean bass zither (deep and percussive), Korean two-string fiddle (emotional and grainy), large Korean gong (deep and resonant), warm and confident Korean female vocal, melodic chorus with modern rap verses.”

이 문장 안에는 곡의 전반적인 요소가 모두 담겨 있다. 리듬의 템포(94BPM)로 그루브를 설정하고, 전통 악기의 울림을 음색의 질감으로 재해석해 한국적인 분위기를 유지했다. 보컬은 따뜻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여성 음색으로 설정해 '전주 아리랑'의 여운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냈다.

좋아요 🍌

그럼 지금 만든 K-Hip Hop + R&B x 국악 가사에 맞춰, SUNO에서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3가지 스타일 프롬프트를 작성해 드릴게요.

🎧 스타일 프롬프트 3종

1. 밸런스형 - 전통과 현대의 균형

SCSS 코드 복사

Korean R&B hip hop at 96 BPM, smooth groove with Korean traditional zither
2. 감성형 -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무드

SCSS 코드 복사

Emotional Korean R&B hip hop at 94 BPM, mellow groove with Korean traditio
3. 에너제틱형 - 공연 무대 스타일

SCSS 코드 복사

Energetic Korean R&B hip hop at 98 BPM, powerful groove with Korean tradit

완전 좋아요 🍌

인트로에서 웅장한 북소리 + 거문고 + 국악기 앙상블로 시작하면, 도입부에서 한국 전통의 무게감과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현대적인 비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딱 좋습니다.

🎧 인트로 사운드 구성 (의도 요약)

- 북 → 단단하고 깊이 있는 울림 (장구보다는 북이나 태고 계열의 분위기)
- 거문고 (Korean bass zither) → 낮고 굵은 줄소리, 웅장하고 강한 베이스 느낌
- 보조 국악기 →
 - 피리나 태평소처럼 너무 중국풍 안 나게 조심
 - 대신 대금 (breathy), 해금 (grainy), 징 (resonant) 같이 공간감을 채워주는 악기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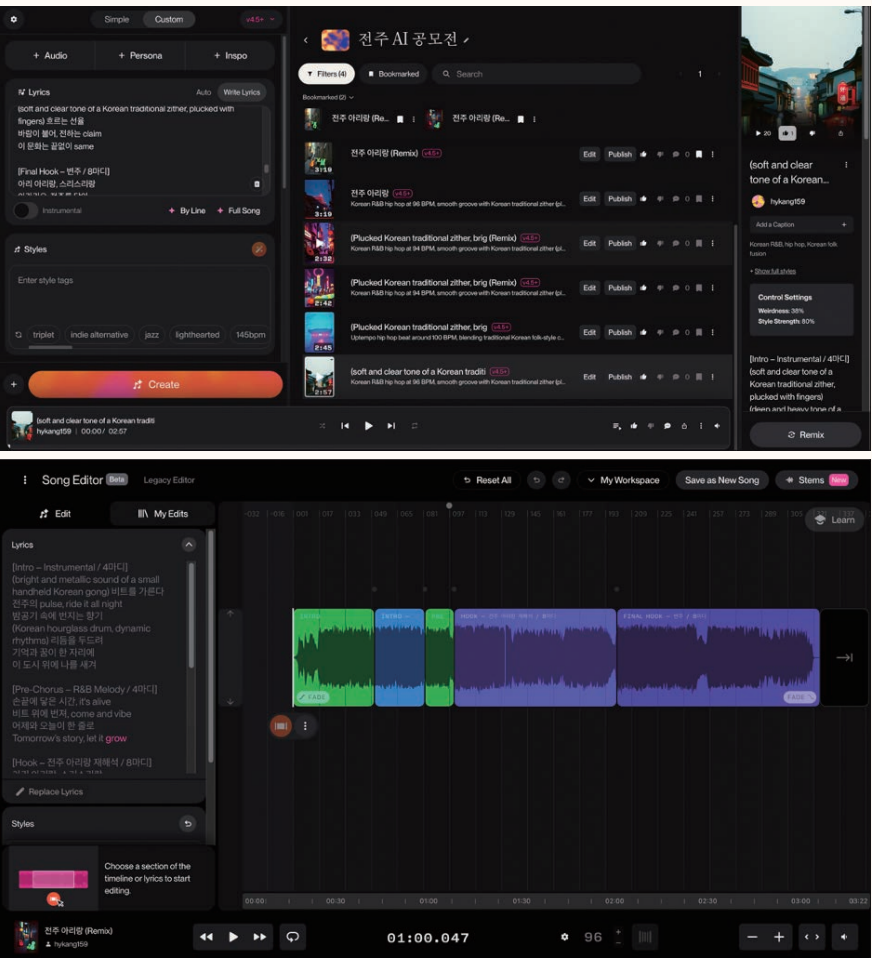
🎧 SUNO용 인트로 스타일 문장 예시 (영문 프롬프트 일부)

아래 문장을 전체 프롬프트에 포함하거나, 스타일 프롬프트 앞부분에 삽입하세요:

“Starts with a cinematic Korean percussion intro featuring deep resonant drums and Korean bass zither, followed by breathy bamboo flute and emotional Korean string instruments.”

🎧 문장 해석:

- cinematic Korean percussion intro → 영화음악처럼 웅장한 국악 리듬 도입
- deep resonant drums → 북소리 (울림 있는 타악기)
- Korean bass zither → 거문고
- breathy bamboo flute → 대금
- emotional Korean string instruments → 해금 or 아쟁



Suno에서 AI 노래 생성

이제 완성된 프롬프트를 Suno에 입력하고, 실제로 음악 생성을 진행했다. Suno는 한 번의 생성당 서로 다른 버전의 두 곡을 만들어준다. 같은 가사와 프롬프트라도 리듬, 악기 밸런스, 보컬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게 구현되기 때문에 두 곡 중 원하는 분위기에 더 가까운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 차례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세부 옵션을 조정하며 다양한 버전의 곡을 생성해 본 뒤, 가장 완성도 높은 한 곡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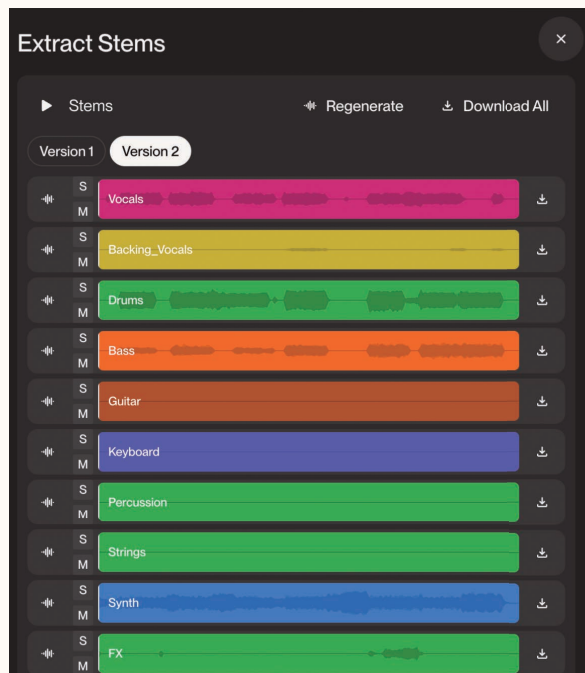
Suno의 'Song Editor' 기능을 활용하면 생성된 곡을 다시 불러와 가사를 수정하거나 특정 구간의 멜로디나 보컬을 재생성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후렴 부분의 가사를 다듬거나 리듬이 약했던 구간을 재생성해 완성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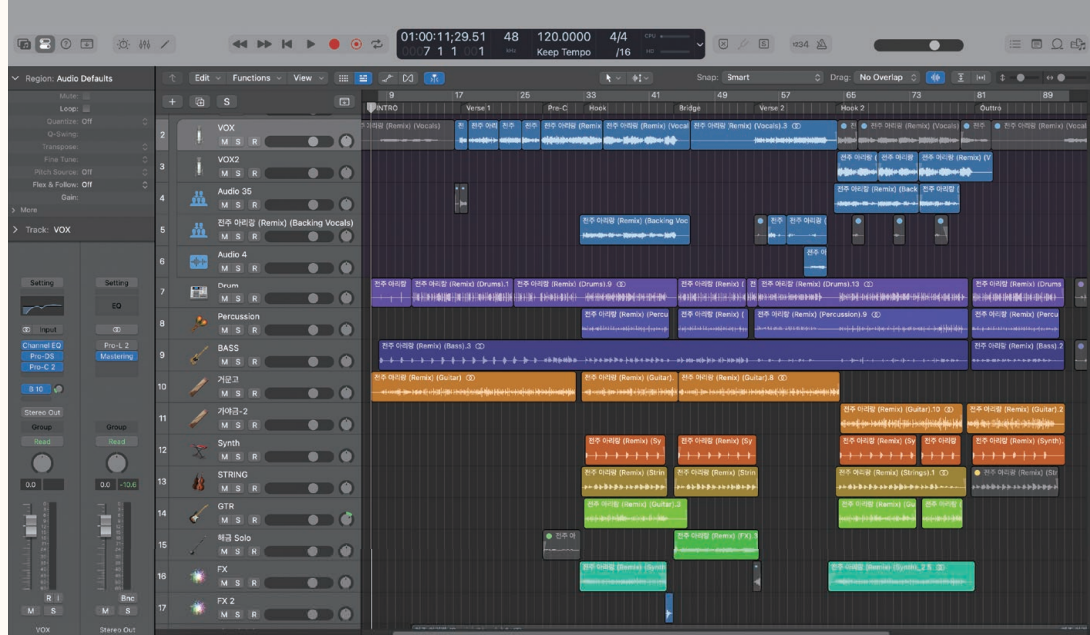
DAW(Digital Audio Workstation)에서 후반 작업

AI가 생성한 곡은 기본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들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음향 밸런스나 곡의 구조를 직접 조정하기 위해 DAW에서 후반 작업을 진행했다.

'Get Stems' 기능을 사용하면 보컬뿐 아니라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등 각 악기 트랙이 분리된 오디오 소스 파일을 개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 기능 덕분에 AI가 생성한 곡을 멀티트랙 파일처럼 자유롭게 재배열, 편집, 보정할 수 있었다.

A song
that makes it
into an AI





각 소스의 볼륨과 EQ, 공간감(Reverb), 컴프레서 등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악기 구성을 일부 수정해 곡 전체의 완성도를 높였다. 최종적으로 음원을 스테레오 파일로 추출하면 AI로 만든 음악이 완성된다. 완성된 음원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직접 감상할 수 있다.



🎵 AI와 함께 쓰는 나의 멜로디

AI를 활용한 음악 제작은 이제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악기와 장비, 녹음 환경이 음악의 한계를 정했지만 지금은 아이디어와 상상력만 있다면 AI를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최근에는 AI 음악 생성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상업 음악뿐 아니라 영화, 광고, 예술 전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제 음악은 사람과 AI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표현의 장이 되고 있다.

AI로 만든 한 곡의 음악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나만의 감정이 담긴 작품이다. 앞으로도 나는 AI와 함께 내 안의 이야기를 새로운 멜로디로 기록해 나가고 싶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 복잡한 장비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 그저 몇 줄의 문장과 약간의 호기심만 있다면, 당신만의 노래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